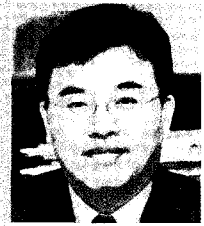


2009년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1. 경기하강 심화될 전망

2008년 한국경제는 연초부터 하강곡선을 지속적으로 그려왔다.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8년 1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에 따른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있다. 이 여파로 세계교역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 지수, 건설기성액, 도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서비스업활동지수(도소매판매 제외), 비농가취업자수, 수입액 등의 지표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1분기에 5.8%를 기록한 후 2분기에는 4.8%, 3분기에는 3.9%로 하락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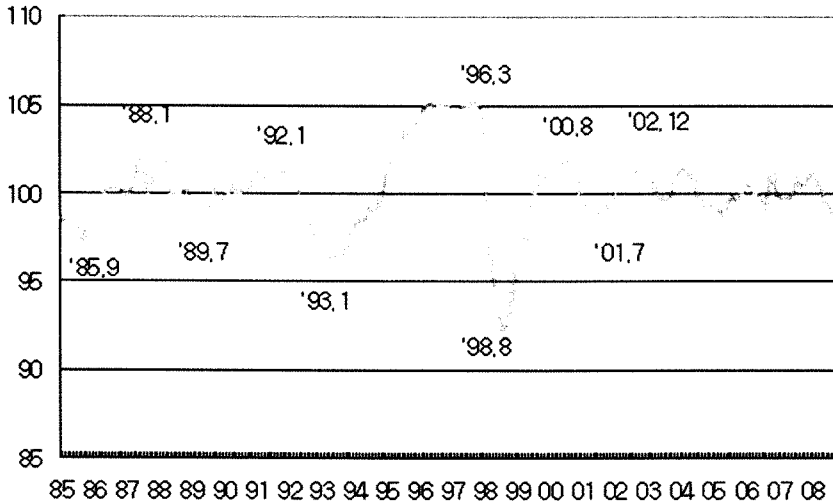
다. 전기비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의 0.8%에서 3분기에는 0.6%로 낮아졌다. 전기비로 아직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4분기 혹은 2009년 1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흐름이 악화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서도 알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08년 12월에 55.0(100이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55.0)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경기를 부진하게 보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실물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6개월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계획,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매월 작성하는 소비자기대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 지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악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 안팎을

경기사이클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전망기관들의 대체적인 추정이다. 이는 2007년 성장률 5%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이다. 200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2009년 성장률을 각각 2%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3%와 2.7%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망치를 계속 하향수정하고 있다. 2009년 전망치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3.2%, 현대경제연구원은 3.1% 등 3%대로 보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 2.4%, 한국은행 2%를 비롯해 LG경제연구원과 포스코경영연구소 등도 2%대로 전망치를 하향수정할 예정이다.

2. 소비와 투자 급격한 위축 전망

성장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GDP 구성항목인 민간소

비는 증가율이 전기비로 2008년 1분기 0.4%에서 2분기에 -0.2%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 0.1%로 다소 회복됐으나 4분기에 다시 -1%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 전망). 소비가 이처럼 위축된 것은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역(逆)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와 가계부채 증가, 고용부진 등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래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상산기에 가파르게 올랐던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교역조건(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눈 값) 악화도 소비심리 위축에 물론 영향을 미쳤다.

2009년에도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계속 위축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세 및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과 주식시장의 바닥 탈출에 따른 자산효과도 소비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가늠하는 핵심 요소인 설비 투자는 부진한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3년 -1.2%를 나타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4년 3.8%, 2005년 5.7%, 2006년에 7.8%로 높아졌으나 2007년에는 7.6%로 다소 낮아졌다. 2008년 들어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기업채산성 악화로 투자부진이 심화됐다. 즉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8년 1분기 -0.4%에서 2분기에 0.9%, 3분기에 2.1%로 상승했으나, 4분기에 다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 전망).

설비투자 부진은 세계경제가 동시 침체에 빠지는 가운데 기업의 수익모델 부재와 외환위기후 보수적으로 변한 경영풍토, 기업가정신의 쇠퇴, 각종 규제 등이 투자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게 대부분 연구소의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투자부진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위축세를 지속해 왔다.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진 각종 대책들이 가격 하향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한편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장기 침체 현상을 빚고 있다. 건설투자는 2003년에만 해도 7.9% 늘었으나 2004년에는 1.1%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건설투자가 각각 0.2%, 0.1% 줄었다가 2007년에는 1.2% 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1분기 -1.4%, 2분기 -1.0%, 3분기 0.0%로 또 다시 극심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4대강 정비사업 등의 효과가 나타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민간 주택건설 부진으로 회복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 원화절상 속에 경상수지 개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한 원화가치는 2007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08년 하락폭이 컸다. 2008년 12월 10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3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가치가 32.8% 떨어졌다. 환율은 외화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8월 중순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한때 1550원선을 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대외부채 상환에 따른 외환보유액 부족 우려 등 대외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는 달러화 매도를 자제하고 수입업체 및 역외세력은 매수에 집중하는 심리적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도 환율 급등의 원인이었다. 환율은 월말 기준으로 11월에 1482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2월 들어 하락했다. 특히 10월 27일 한미 통화스왑협정 체결을 계기로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화값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엔화는 강세 기조를 유지해 원/100엔 환율이 12월 10일 현재 1505원까지 치솟았다. 2007년 6월말 752원과 비교할 때 원화는 엔화에 대해 가치가 50% 하락한 셈이다.

국내 각 기관들은 대체로 2008년 원·달러 환율이 上高下低 형태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전망치에 대해서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원·달러 환율 평균을 1,040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상수지

가 2008년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돼 환율이 실질 실효환율로 본 적정 수준(1,006원)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점진적으로 진정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환율의 변동성은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70원으로 2008년 1056원보다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높은 환율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10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더구나 경상수지도 58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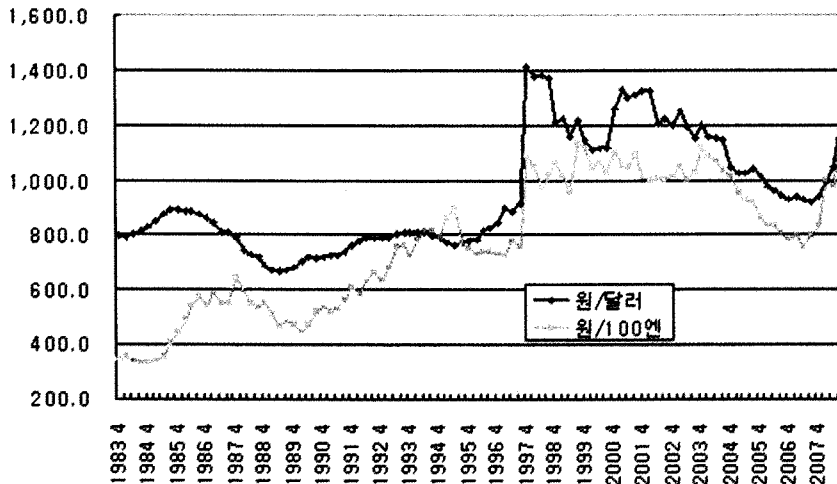
LG경제연구원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가 점차 개선되면서 환율이 안정돼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정환율은 1090원으로 판단되나, 금융기관 부실 우려 등으로 2009년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이 완만하게 떨어질 것이나, 평균으로는 2008년 1100원에서 2009년에는 12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08년 59억달러 적자에서 2009년에는 25억달러 흑자로 전환돼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2007년 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2008년 10월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원유가격 급락 등에 따른 수입 감소와 원화값 급락에 따른 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10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49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났다.

2009년 경상수지 전망치는 기관마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낙관적으로 본 것은 한국은행으로 220억달러 흑자를 내다봤다. 상품수지는 유가하락 및 국내수요 위축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정부도 2009

환율추이(분기말)



주요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기말치 기준)

구 분	엔화	유로화	호주 달러화	대만 달러화	싱가폴 달러화	중국 위안화	인니 루피아	한국 원화
2003년	11.0	19.9	34.0	2.3	2.2	0.0	6.3	-0.5
2004년	4.3	7.7	4.0	7.2	4.1	0.0	-9.3	15.2
2005년	-13.0	-12.7	-6.2	-3.5	-1.8	2.6	-5.6	2.3
2006년	-0.8	11.5	7.6	0.7	8.5	3.3	9.3	8.8
2007년	6.1	10.5	11.0	0.5	6.7	7.0	-4.2	-0.7
2008년 9월말	7.3	-3.5	-9.8	0.6	0.6	6.7	-2.1	-22.4

주: 플러스는 절상률, 마이너스는 절하율

년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00억달러로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6억달러의 흑자를 예상했고, 삼성, 현대, LG 등 민간연구소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상수지가 2009년에 58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둔화세가 이어지고 특히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유로 등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유가 하락으로 물가안정, 금리 하락세

소비자물가는 2007년 하반기 들어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2007년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들어 크게 높아져 동년 2분기 4.8%에 이어 3분기에 5.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물가가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관들이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9년 상반기에 3.5%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낮아져 2.5%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석유류와 농산물(곡물은 제외)을 뺀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율은 3.5% 내외로 다소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업제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춘데다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채권안정펀드 등을 통한 자금투입을 지속하고 있어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공조와 유동성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신용경색 현상이 완화되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주류소비 하반기에 완만히 회복될듯

주류는 비내구소비재로서 그 때 그 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가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불요불급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둔화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경기가 주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소주 같은 서민주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열등재'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집계한 2008년 1~9월 소주 소비량은 전년대비 5.1%가 증가했다고 한다. 25억3천605만병이 소비됐으니 국민 1인당 53병꼴로 소주를 마신 셈이다.

그러나 위스키나 와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제품은 '정상재'로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준다. 더구나 최근과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다 원화값 마저 급락한 상황에서는 소득도 문제지만 수입가격이 급등해 외국산 고급 주류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

에 없다. 물론 수입 주류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 주류는 원화값 급락의 혜택을 볼수도 있다.

2009년에도 위스키 소비 회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2008년 12월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한도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스키 소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위스키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웰빙 열풍과 가정지향적인 생활패턴 등으로 독주인 위스키보다 와인이나 보드카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위스키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와인 선호경향이 높아진 영향으로 와인소비가 꾸준히 늘어 왔으나, 경기 침체의 여파와 환율의 영향으로 최근에서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원화 가치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와인 소비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수입실적(천달러,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10월)
맥주	1,941 (130.4)	5,022 (158.8)	11,866 (136.3)	12,802 (7.9)	13,664 (6.7)	14,848 (8.7)	16,532 (11.3)	20,506 (24.0)	30,579 (49.1)	35,420 (39.4)
위스키	115,919 (5.7)	180,194 (55.5)	202,355 (12.3)	247,941 (22.5)	250,401 (1.0)	213,682 (-14.7)	228,915 (7.1)	225,997 (-1.3)	270,294 (19.6)	225,601 (5.4)
포도주	15,122 (133.0)	19,802 (31.0)	23,109 (16.7)	29,432 (27.4)	45,783 (55.6)	57,979 (26.6)	67,655 (16.7)	88,607 (31.0)	150,364 (69.7)	143,954 (20.4)

주: 1) ()속은 증가율 2) 맥주는 MTI코드 015720, 위스키는 015750, 포도주는 015740

6. 와인과 위스키는 수입 둔화, 맥주 수입은 견조

주류별 수입현황을 보면 포도주(와인)와 위스키는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맥주 수입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도주는 99년에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2002년 27.4%, 2003년 55.6%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2004년과 2005년에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2006년 이후 다시 높아져 2007년에는 증가율이 69.7%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둔화돼 1~10월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20.4%를 기록했다.

위스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여전히 가장 크지만

증가율 자체는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0년만 해도 55.5%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입증가율은 2003년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번갈아가며 오르락 내리락 했다. 2007년에는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이 19.6%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8년에는 1~10월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5.4%로 다시 크게 떨어졌다.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2002년 들어 크게 둔화돼 2004년까지 3년간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쳤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수입증가율이 높아져 2007년에는 49.1%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수입증가율이 다소 떨어졌으나 39.4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독주 기피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울은 당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르쳐 준다.

술은 당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르쳐 준다.

술잔 앞에서는 마음을 여미라!

- 독일 속담 -